

월간 충현

제직 헌신의 달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월
1985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만만하여, 자기가 빠져서 될 일은 하나도 없고, 자기가 끼면 안될 일이 또한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과 행동은 사람이 전능자가 아닌 이상 굉장한 무지오오만이다.

그렇다고 자기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자신을 포기하고 살려는 자포자기의 함정에 빠져서도 안된다.

성도들은 자만이나 자포자기 중 어느 하나라도 취하여서는 안될 양극이다. 성도는 자포도 아니고, 자신도 아닌 그리스도 안에 서서 확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를 믿는 자신과 자포자기의 고비를 넘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확신과 은총 속에서 살아야 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첫째는 지은 죄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범죄한 손을 짚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질 수 없다. 죄 때문에 사형을 가하고 자살을 해도 그 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없앨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엡 1:7)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죄든지 사함을 받는다.

잡초는 심지 않아도 나지만, 곡식은 기르기가 어려운 것처럼 죄는 배우지 않아도 범하게 되지만 선은 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전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2:10)

비천과 빈궁에 걸리지 못하여 번심하고, 환난을 참지 못하여 신앙의 길을 떠나는 자가 많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말이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 하였으니』(빌 4:12,14)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새해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개인은 예수님 안에서 성공이 있고, 교회는 성전공사도 완공을 보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국가적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고 세계적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 오기를 바란다.

五大目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教
民族福音化
世界宣教
聖殿建築

월간 충현

1972년 4월 30일창간
제13권제 1호
통권 125호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임
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
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
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
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충현 1972.10

1월호

차 례

권 두 언 / 능력주시는자 안에서.....	이성근..... 2
이달의말씀 / 성전에서 할일이 무엇입니까?.....	김창인..... 4

85년도 당회장 목회방침	6
---------------------	---

기획 특 집 / 새해의 구상.....	8
----------------------	---

85년도 각위원회에게 듣는다

기획조정실/최석주, 전도위원회/정석태
교육위원회/조영길, 북한선교위원회/오진국
세계선교회/한경일, 성가위원회/김창근
장학위원회/윤명식, 봉사위원회/박치민

특별 제 언 / 전도를 통한 교회부흥과 성전건축.....	이세열..... 16
새 해 단 상 / 우리 모두 새노래로 한해를 살아가자.....	조현명..... 18
관심의 차이.....	최명실..... 19

□ 기독교대백과사전에 소개된 충현교회 ·편집부.....	20
--------------------------------	----

신년기도문 / 새하늘과 새땅을 바라보게 하소서.....	송환창..... 24
충 현 칼 럼 / 지속적인 동행.....	김광신..... 25
선교사 선교지 소식.....	26
편집자가 보내는 글.....	홍보출판부..... 29
교회소식.....	30
이달의 교우 동정.....	32
이달의 행사 및 편집후기.....	34



□ 표지사진설명 □

1985년 새해를 맞아 충현
교회 교역자및 당회원들이
건축중인 새성전(본당) 앞
에서 '새성전 완공'을 기원
하며 기념촬영.

성전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사 56 : 7)

김 창 인
(목사 · 본교회당회장)

성전에 나온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하신 하나님의 청함을 받아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예배드릴 자격을 받았다는 증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전에 나와 앉았다는 것은 놀라운 복이요 거룩한 자격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나온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1)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성전에 나온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천상천하에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집권자가 아니시고 영원토록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성전에 나아오는 자들이 먼저 할 일은 내게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입으로 찬송을 부르고, 마음과 영혼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일이 성전에 나온 성도들이 첫번째로 할 일입니다.

저는 책망 비슷한 말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에 나와 겹을 씹으며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어린 아기를 치켜들고 그냥 ‘어야 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앞에서 겹을 씹는 사람이 땅 위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는 아기

를 열리려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과자봉지를 뜯어 슬쩍 입에 넣고는 우물우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 마저 겹을 씹으며 앉아 있으면 그것은 정신빠진 사람의 버릇입니다.

(2)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와 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 가물지 않는 영혼이 되겠고, 황무지와 같은 땅 위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른다면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의 나팔소리를 들을 수가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신령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초청 나팔소리가 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영혼이 윤택하여지고 •악마와 더불어 싸워 이기는 힘이 생기고 •어두운 세상에서 방향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갈 길을 밝혀주는 빛, 폭풍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성령의 빛이 내 마음 속에 불을 붙을 것입니다.

성전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므로 승리할 실력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가슴 속에 채워 집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혹은 구역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미리 준비하였다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집중력이 나지 않도록 아예 연탄도 미리 갈고 나오는 것입니

다. 그리하여 마음 놓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고 '아이구 어찌나 연탄불이 꺼질텐데' 이러면서 안달을 하면 안됩니다.

(3)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험한데 나는 약하고 악마는 간악한데 나는 어리석고 할 일은 많으나 세월은 빨리 흘러 짧게 끝나니, 하나님 아버지, 밤에 빛을 안 지고 살다 가야 되겠사오니 나에게 힘과 긍휼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들이 겸손히 무릎을 꿇고 은혜를 간구하되, 좋은 서원을 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서원”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바른 목적을 세우고 “주여! 이렇게 해 주옵소서” 라고 은혜를 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번에 제가 대학교 입학 시험을 치오니 합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너 대학에 입학하면 무엇할거냐?”

“공부하지요”

그러면 또 물으시기를

“공부해서 무엇을 할래?”

“밤벌이 하지요”

“그래, 공부하지 않으면 밤벌이를 못하느냐?”

“공부하지 않고는 힘이 드니까 편안하게 밤벌이 할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편안하게 돈을 많이 모으면 무엇을 할 것이냐?”

“먹고 살지요”

“먹고 살면서 무엇을 할거냐?”

“그것은 그때 가보아야 알겠습니다”

진부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받은 은혜가 막중 하오나 아직도 연약하오니 제게 힘 주시고 물질을 주시면 교회와 복음 사업을 위하여 이웃과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두에 세우고 남을 위해 혜택을 끼치려는 목적이 있어야 그것이 서원기도입니다.



(4)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헌신하여야 합니다.

일본 초대 중의원 의장이었던 시라오카 장로는 주일마다 노인들의 신을 정돈하는 봉사의 일을 맡았습니다. 그 교회에 시무하는 다다소 목사는 그 연로하신 장로님이 수고하는 것을 보고

“연로하신 장로님, 나라에선 국회의장이신데 그런 일은 하지 마시지요” 라고 만류하였더니 장로님이 대답하기를

“소위 장로라는 교회의 중직을 받은 자로 국사에 매어 교회 봉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주일 예배시간에 섬기는 이 봉사는 나의 천직으로 알고 행하는 일이니 목사님 이 일은 만류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시라오카 장로는 일본 천황 폐하로부터 하사된 최고훈장을 주일에 받아 가라고 하는 것을 부양하고 찬양대석에서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임종하였다 합니다.

장하도다 그 믿음이여! 땅의 상급보다 하늘의 상급을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였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 하나님만 높이는 장소여야 합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로 내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여 은혜를 간구하고, 나의 것을 아낌없이 바쳐 봉사하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상급받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 집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나는 너로 내 집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릴 복을 주리라” 하실 것입니다.

“온 교우의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복된 한해로”

지난 해는 충현교회가 성전을 옮기는 준비를 하고, 또 이사를 하여 정착을 하느라고 여러면에서 대단히 혼란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 혼란기를 벗어나 완전히 정착하는 해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 까지도 여러가지 유동적인 어려운 여건이 있어 정착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정착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예배당이 완공되지 못하여 완전한 정착이 어려우나, 다른 면에서는 뿌리를 바로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몇가지 저의 방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신자들이 은혜 받고, 불신자에게는 전도가 되고, 후손들에게는 복을 물려주는 업적을 남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바로 드려야 합니다.

첫째 찬송에 대하여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을 바로 부르고 은혜를 더하며 찬송가 부르기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예배시간 훨씬 전부터 목사, 장로, 일반제직, 또는 남녀 교역자들이 당번을 짜서 예배당 여러곳에 서서 찬송 부르는 시간 실시를 제안합니다.

금년은 특별히 찬송을 많이 부르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분위기 속에 예배가 준비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기예배 외에 16부 주일학교도 역시 동일하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온 교인이 일년 52주간을 지나는 동안 찬송가 몇장을 완전히 암기할 수 있도록 실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후 돌아가는 시

간까지도 찬송을 부르며 돌아가도록 해보려 합니다.

둘째, 설교에 관해서

지금까지 제가 충현교회에서 30여년 목회하는 동안 1년 52주를 반으로 나누어 신구약을 번갈아 설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다른 여러 유명한 설교가들의 자료를 갖고 기도하며 왔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의 설교 내용에는 절대 가능성(빌4:13)이 꼭 담겨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재림에 대한 소망 이것이 설교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기도에 대해서

예배중의 공기도는 준비없이 임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기도당면인 것을 미리 알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 교인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한 시간조정을 잘하여 5분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다른 예배순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네째, 축도에 대해서

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성령의 형태로 (고후13:13)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나 축도의 마지막은 “...있을지어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예배시간의 자세를 올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다든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되 경건한 태도와 경건한 마음자세가 요청됩니다.

2. 교육

천국 일꾼을 양성하는 교육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온 교인들이 대예배만을 중요시하여 그 시간에만 참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부 주일학교 시간에 참석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유년시절에만 주일학교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장년, 노년에도 마찬가지로

든지 모르든지 성경을 많이 읽고 매일 읽으면 콩나물 시루에 물주는 것같이 어느새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네째, 교사의 자세

예배시간이나 여러가지 순서를 진행할때, 어린이들이 교사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말고 바른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타이르고자 하는 어린이가 있으면 조용히 불러 개인적으로 지도하고 설득해야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해서 교육의 중심은 교회가 되어야

예배의 경건성, 교육의 극대화 새성전 건축, 전도·宣敎의 활성화

말씀공부로 영혼이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일학교 예배에 대해서

주일학교 예배도 대예배와 마찬가지로 찬송을 부르는 중에 예배가 준비되고, 찬송을 부르면서 돌아가도록 유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순서진행에 있어서 순서와 순서사이의 공간이 생김으로 여기서 분위기가 산만해지고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자는 치밀하게 짜임새 있는 진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주일학교 예배에 대해서

어린이들 일수록 소외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 구역에서 집이 커서 집회 장소로 허락되는 집에 모여 구역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게 생각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어린이들은 가능한한 교회에서 모임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성경읽기에 대해서

몇절을 잘 외우게 하는 것보다는 통채로 먹는 것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성경다독을 권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뜻이야 알

합니다. 산발적인 교육이 아니라 교회의 교육 계획과 일치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소기의 목적을 이룰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교육은 교사의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사가 변화되고 은혜를 받아 그것으로 가르쳐야 산 교육이 됩니다.

3. 선교와 전도

국내전도, 북한선교, 해외선교는 모두 동일한 전도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러한 부서의 활동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증거를 해야하는 사명을 갖고 있으므로 목표달성을 위해 서로 협력하며, 민족복음화가 곧 북한선교요, 북한선교가 곧 민족복음화이며, 이것이 다시 해외선교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동차 바퀴가 동시에 돌아가야 차가 움직이듯이 피차 아름다운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강조하는 것은, 금년은 충현교회가 새 터전에서 정착하고 깊이 뿌리내리는 해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어린이에서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교우의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복되고 은혜스러운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의 구상

85년도 각위원장에게 듣는다.

85년 새해를 맞이하여 각위원회 위원장들의 새해계획을 듣는 난을 마련했다.

새로 임명받은 각위원장들의 새해포부와 구상, 그리고, 운영 계획등을 단편적으로 엮어본다.

순서는 원고도착순이므로 서열에 관계없이 게재되며 이번 호에 원고를 제출치 못한 위원장은 다음호에 계속 게재할 방침이다. (편집자주)

기획조정실



최 석 주

(장로 · 기획조정실장)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충현교회가 설립된 30년이래 가장 광범위 하고 전반적인 조직개편으로 교회목표인 천국일꾼양성 민족복음화 북한선교 세계선교 새성전건축을 달성하여 교회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일하며 전하는 교회로서 시대적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며 지속적으로 부흥하며 성장 하기에 이르렀다.

그 구체적인 목표를 첫째 교인배가운동 체제 둘째 영적각성과 부흥체제, 세째 행정 차리의 현대화체제를 기하였다고 본다. 조직은 하나의 뼈대에 불과하며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조직형태라 하더라도 거기에 피와 살이 덮여야 생명력이 활동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조직체로 활성화해야 하며 실제 목회 영역에 있어 유용한 도구가 되고 그 기능을 계속살려 나가야 한다. 따라서 유능한 일꾼이 요구되며 당회의 계속적인 관심과 주도가 필요하고 각 기관이 호응하고 균형있는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제 우리교회는 새 성전 시대에 돌입하였다.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움추렸던 어깨를 활짝펴고 충현의 지력을 발휘할 때가 왔다. 지속적인 교회성장과 부흥의 새로운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당회장의 85년도 목회지침을 따라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움으로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 충성하여야 된다. 당회와의 종적인관계가 잘 유지되는것 같이 횡적인 유대를 강화시켜 인적 재정적 시간적 효율을 거두고 각 기관별로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성도들 개인의 착실한 신앙성장과 영적 성숙을 기하여 충현의 정통신앙을 확실히 다져나가며, 새 성전을 아름

답게 건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16위원회가 서로 협력하여 새 성전건축에 초점을 맞추어 유기적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총현의 모든 성도들도 이에 부합된 협조체제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이제 본당의 건축공사가 해방과 더불어 실시되어 외부적으로 예배당의 형태를 갖추고 주자장 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새로 등록하는 교인들을 수용해야 하는 봉사적 측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총현이 아니라, 한국의 총현으로 한국의 총현이 아닌 세계의 총현으로 발전될 우리교회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또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키 위해 성도 개인마다 기도의 불을 붙이고, 봉사와 헌신의 결단이 필요케 되었다.

바라기는 집약된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에 다함께 동참하여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도위원회



정 석 태

(장로 · 전도위원장)

민족복음화와 교회성장

1.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배우고 일하며 전하는 교회.

선교 2 세기를 새성전에서 맞이하는, 85년 새해는 우리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일하며 전하는 교회로서 5대목표중 하나인 민족복음화의 성업을 재촉하며 전도를 통한 교회부흥상장과 새성전공사의 대업을 완상하기 위하여 전교인은 전도요원화하고 (전도인이 되고) 전교인이 배가운동하기 위하여 당전도위원회에서는 85년도 전도정책및 사업방침 (84. 10. 30 당회통과)에의거 교회전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읍니다.

① 전교인은 전도인이 됩시다.

② 전교인은 배가운동 합시다.

새해를 맞아 교회의 전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 성도들은 (남, 여, 모든, 구역원, 주일학교 학생, 성가대원, 남, 여, 전도회원).

다전도인이 되고 한사람이 한사람씩 배가운동하여 온성도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여” 각기관, 부서마다 배가하는 부흥과 성장책을 강구하고저 합니다.

2. 각부서 기관은 년중자체 계획에 의거 전도교육과 배가전도를 실시해야합니다.

각교구 각주일학교, 각성가대원의 전도교육과 배가운동실시는 각해당위원회에 위촉하였으므로 각해당위원장 책임하에 자체계획에 의거 년중실시하되 년말까지 한사람이 한사람이상씩 배가성장하는 목표로 전도에 전력을 다하고 배가전도에 우수한 기관과 개인을 주기적으로 표창 시상하여 전도의 사명을 고취하고 신앙의 열매가 전도를 통하여 맺이지기 원합니다.

3. 남, 여. 전도회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모든 남성도는 남전도회에”

“모든 여성도는 여전도회에”

가일하여 기도하며 전도사업하고 봉사하며 친교를 나누어 성도간의 교제와 돌보아주는 소외되는자 없도록 친교에 힘써 모이는데 열심을 내도록 힘을 내도록 열심의불을 성령의불을 이르게 교회를 주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부흥시켜야 합니다.

4. 대외적인 민족복음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가) 농어촌 및 군경복음화를 위하여 계속하여 특히 재도자훈련과 부흥회인도, 전도대 파송은 북한선교원에 위촉시켜 영적인 자체부흥책을 자생시키면서, 경제적인, 지원보조를 하여, 자립과 복음화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나) 산업전도, 복음화책을 연구해야 합니다. 민족복음화의 일환으로 산업사회와 산업인들의

복음화가 시급한바 현재 전담전문 교역자가 없기 때문에 각 교구별로 교구내의 직장예배와 성경공부를 교구에 위촉하고 있는바 정책적인 연구와 복음화책을 강구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 학원전도, 복음화책을 연구발전 시키고저 합니다.

천국일꾼 양성과 2 세복음화를 위하여 학원전도복음화가 시급하고 중요하나 현재 까지 주교면려회를 통한 전도정도로 뚜렷한 학원복음화의 전략이 미약함으로 전담교역자의 연구와 특히 중, 고, 대학부, 지도교역자들의 깊은 정책적인 연구와 소신있는 복음화책을 연구발전시켜야 할것입니다. (등록해오는 학생뿐만아니라 나아가서 모아오는 적극적인 전도전략이 소망됩니다. 라 매스콤 전도사업은 현금모로 계속 특히 기독교방송 (837Khz) 매주 토요일밤 10시~30까지의 당회장 목사님의 충현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 PR하여 한번 '들어보라, 식으로 권면 권유하여 전주일, 대예배시간에 미참한 성도들의 영적양식의 보충, 공급의 기회로 또 새신자들에 대한전도용으로 한번 '들어보라, 하여 방송전도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저 합니다.

마) 병원전도, 구치소, 소외된자, 기타선교기관전도사업도 계속 실시하고저 합니다. 병원원목들의 활동을 지원보조하며 노래선교단, 위문봉사전도단등을 파송 하고저 합니다.

구치소 소외된자 특수시설 선교기관에 수용된자들의 위문전도를 계속하고저 합니다. 주기적인 노방, 전도, 가두전도를 계속 실시하여 병원, 은행, 보건소등 대중집합대기실에 전도문서 비치대 (현재50여곳에 설치되었음,) 운영도 계속 발전시키고저 합니다.

이상과 같은 새해전도사업을 통하여 먼저

- ① 전교인은 전도인이 되고
- ② 전교인은 배가운동 하여

교회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룩하여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 ① 모든 남성도는 남전도 회원이되고
- ② 모든 여성도는 여전도 회원이 되어

증인이 되라하신 하나님의 절대명령과 주님의 유혹을 순종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돌리며 민족을 복음화 하고 전도의 사명을 다하고 교회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고저 합니다.

교육위원회



조 영 길

(목사 · 교육위원장)

성숙한 그리스도인 육성

“천국 일꾼 양성”이라는 우리 교회의 교육적인 큰 목표아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육성하자.” (골1:28-29) 라는 표어를 정한다.

교육은 바로 성숙을 목표로하고 성숙은 또한 교육을 내포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기독교 교육의 목표이기도하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의 측면에서 볼때에 “교회는 곧 교육이다!” 라고 말 할수가있다. 그러므로 교육을 바로하고 잘 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다. 교회 성장과 교육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하면 교회 교육을 바로하고 잘 할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는 교회의 큰 관심사요 숙제이다. 여기서는 우선 금년도 교육방침에 대하여 몇가지만 제시 하려고한다.

1. 교사 (教師)

성숙한 교사가 성숙한 양을 키울수가 있다. 교사들의 질적인 향상과 모범적인 생활은 배우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된다.

(1). 예수님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교사 (성경공부)

교사들이 먼저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잘 모르고서야 어찌 가르칠수가 있겠는가? 배우고 연구하는 교사로 인도 하겠다.

(2). 잘 권하는 교사 (상담과 심방)

교사는 가르치는 것 으로만 부족하다 위로하고 격려하며 바로 잡아주고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하여 주어야 한다. 이것은 상담과 심방으로 가능하다.

(3).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는 교사 (기도와 경건 생활)

아무리 교사가 지식이있고 수완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안된다.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한다. 그래서 매 주일 아침에는 교육위원회 주최로 기도회를 가지려고 한다.

(4).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교사(헌신과 충성) 교사들은 순수한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만 한다. 그것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이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성숙한 교사상을 정립하여 나갈 생각이다.

2. 학생 (學生)

성숙한 양으로 (그리스도 인으로)육성한다.
성숙한 양으로 육성하는 대는

(1). 순종하고 따르는 양으로 (배우고) 학생들은 무엇보다 먼저 배우는 자들이다. 때문에 그들로 교사에게 잘 순종하고 따르면서 열심히 배우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2). 말씀대로 생활하는 양으로 (실천하고) 배운 말씀을 개개인의 생활 현장까지 깊숙히 가지고 가게하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생활 신앙이 중요하다.

(3). 말씀을 증거하는 양으로 (전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여 확신을 얻었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게된다. 전하지 아니하면 부흥은 기대 할수가 없는 것이다.

(4).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양으로 (열매맺게) 육성한다.

이것은 교육과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떠한 삶속에서도 승리한다.

3. 예배 (禮拜)

교회의 삼대 사명은 예배와 교육과 선교이다. 때문에 예배 잘 드리는 교회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부흥한다.

(1). 찬송으로 준비하는 예배와 집회 지난 연 말부터 우리교회가 예배 15분전부터 찬송을 많이 부르고 열심히 부르면서 준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16부 주일 학교에서도 그와 같다. 각부에서 예배(혹은 주일 오후 모임)10분 전에 지도 교역자, 부장, 교사들이 앞에 나와서 열심히 찬송을 부르면서 학생들을 영접하

여 경건하고 영감이 넘치는 예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2). 교사들의 뜨거운 기도와 준비 모든 주일학교는 예배와 집회 시작 30분 전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준비하여 가르치고 학생들 보다 늦게 출석하는 교사가 없도록 해야만 한다. 절대로 교사회를 길게 갖지 않도록한다.

(3). 주일 오후예배의 활성화

유초소가 연합으로 한 장소에서 중고가 연합으로 한 장소에서 대내 강사를 모시고 전체 교사들의 참여하에 열심 찬송과 뜨거운 기도와 영감이 넘치는 집회로 제도화 한다. 주일 오후 예배의 부흥은 바로 한 주간동안의 생활을 승리케 한다고 본다. 끝으로 620여명의 우리 총현의 교사와 5000이나 되는 우리 총현의 주일 학교의 권속들에게 희망찬 '85년도 이 한해를 승리하고 복받아 성공하시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 합니다.

북한선교위원회



오진국

(장로·북한선교위원장)

평양성회를 바라보며

남북대화가 열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온 국민의 기대와 관심속에서 85년도를 맞이합니다. 총현의 5대목표 가운데 하나인 북한선교를 좀더 힘있게 감당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북한선교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코저 합니다.

1. 민족복음화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농어촌 복음화를 위해서 차량선교 및 지방연합집회, 그리고 방송선교및 전도특공대 훈련을 집중적으로 계속 할것입니다.

특히 전국적 목회자를 대상으로하여 목회자 경건훈련, 목회 대조자 경건훈련을 실시 할 계획

이며 금년에는 장로및 사찰 경건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회지도층에 있는 연수생 신앙훈련및 삼군 기독교사관생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군복음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2. 훈련원 건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불암산 훈련원에 관계 기관의 협조가 대는 대로 많은 사람을 훈련 시킬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강원도 정선 야영장의 시설을 보완할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후원회의 적극적인 물심양면의 후원에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이사장 김창인 목사님을 모시고 평양성회를 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말진 시대적인 사명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세계선교회



한 경 일

(장로·세계선교회회장)

선교재정 자립의 해

새성전 건축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지난 한해는 세계 선교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해였습니다.

3 월에는 라성 충현교회 담임 목사로 정상우 목사님을 파송하였고, 7 월에는 성지 이스라엘에 김주경 선교사님을 파송하였으며, 5 월6 일 설립한 홍콩 충현교회에 오치용 목사님을 8 월에 파송하였습니다. 9 월 30 일에는 뉴욕 충현교회를 설립하였고 담임 목사로 박종만 목사님을 임명하시고 현재 출국 수속 중입니다. 또한 서독 육호기 선교사님의 안식년을 위하여 김성주 목사님을 파송하기 위해 수속 중입니다.

이런 모든 성과는 본 회의 총재되시는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 이하 선교 실행위원 여러분

들과 무엇보다도 충현 성도 여러분 특히 세계 선교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뜨거운 기도와 헌신의 결과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선교 제17주년을 맞이하는 1985년 새해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 가로놓여 있으나 무엇보다도 선교 재정의 자립을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우선 본부에서는 활발한 선교 기도회, 집회, 특강 및 세미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힘쓰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교 현지에 있어서는 재정 자립이 가능하고 선교 사업에 의욕을 가진 지교회와 선교지를 개발하여 연약한 선교지를 돕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선교의 인식을 높이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복된 비전을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본부와 선교지 및 선교지 상호 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지체의식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상호 유대 강화의 유익도 얻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도 지교회를 설립하고 원주민 개척 선교를 위해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교회의 설립은 민족 복음화와 북한선교의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을 뿐만아니라 선교의 전진 기지요 중간 기지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원주민 개척 선교는 실질적인 세계 복음화의 핵심으로 그동안 다소 침체상태에 있었음이나 금년부터 이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선교사 후보자를 선발하고 교육 훈련을 통하여 육성할 구체적인 청사진과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선교 대상지를 연구 조사하기 위한 충현 세계 선교연구소를 활성화 시키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위하여 올해도 충현 성도 여러분과 특히 본 선교회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성가위원회



김 창 군

(목사·성가위원장)

성가대원의 영적성장추구

I. 서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축복은 각기 다르나 그 축복은 헤아릴 수 없이 귀하고 감사한 것이다.

그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성가대의 사명은 하나님앞에 드러지는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며 “제물”이라는 의미에서 불매 성도의 가장 귀하고 첫째되는 사명이라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가운데서 택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것도 우리를 통하여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하심”(엡 1:14)이라는 말씀을 따라 금년 한해동안 성령님의 감동이 넘치는 찬양, 아름답고 힘있는 찬양을 드리도록 대장, 지휘, 반주, 온 대원의 노력하는 한해가 되기를 다짐해 본다.

II. '85년도 각 성가대 현황

구분	대 장	지 휘	반 주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계
1	조인재	최광덕	신채우	27	12	13	8	63
2	김천재	이관섭	백금옥	34	22	17	17	93
3	홍중섭	최명룡	김은백	32	19	8	10	72
4	노광현	조인원	채은실	19	7	9	12	50
여성	정경자	최찬후	김운경	21	18	메조 19		61
선교	이 훈	김영준	김남옥	15	13	8	7	46
계	6	6	6	148	91	74	54	385

III. 성가대 운영의 기본계획

1. 성가대원의 영적 성장을 위해 힘쓰고자 한다.

1) 년초의 단기수련회(1.10~2)를 영적 무장을 위한 부흥회로 대체하여 길자연 목사(신림동교회)를 모시고 은혜 받도록 할 계획이며

2) 각 성가대 별로 성경공부를 계획하고 있다.
(강사: 김창근목사)

첫째주일: 1부 성가대

둘째주일: 2부 성가대

셋째주일: 3부 성가대

넷째주일: 4부 성가대

매월 첫주후 토요일 여성 성가대

(선교성가대는 미정)

3) 대원들에게 성경읽기 운동을 전개하여 년 1회이상 통독하도록 한다.

4) 여름수양회(8.15~17 계획)를 통하여 신앙을 재무장 시킨다.

2. 각 성가대의 실력향상 및 체제 강화에 주력하고자 한다.

1) 대 장, 총무 및 임원-행정 뒷바침과 대원화보에 최선을 다한다.

2) 지휘자-철저한 훈련과 연습으로 질적 수준향상에 힘쓴다.

3) 반주자-전자올겐 사용 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4) 대 원-결석없는 성가대,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대원으로 키우고자 한다.

3. 행정업무의 통일과 각 성가대간의 협의제도 활성화

1) 성가위원회 월례회의 매월 4째주 4부예배후

2) 지휘, 반주자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갖음(1, 4, 7, 10월)

3) 성가위 확대회의(대장, 총무, 지휘, 반주) 년 2회(6월, 12월)

4) 주일날 성가위원회 사무실에 상주할 간사 확보계획-가능한 본교회 장학생 중에서 봉사토록 한다.

4. 음악예배 계획

1) 부활절 음악예배: 6개 성가대 연합으로 드리도록 한다.(4월 7일 부활절 저녁예배시)

2) 교회설립 32주년기념 음악예배(9월 1일 저녁예배시): 2부성가대 담당

3) 성탄축하 음악예배(12월 22일 저녁예배시): 3부성가대 담당

5. 관현악단 창단준비

본당 입당과 동시에 발족할 목표로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기악, 현악등 재능있는 성도들을 발굴하여 오케스트라 구성을 위해 준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준비책임, 1부대장 조인제 장로)

6. 찬송가 감상 증현지 게재

각 성가대 지휘자들로 하여금 은혜롭고 재미있는 찬송가 감상을 계속 연재코자 한다.

7. 찬송가 카세트 테이프 보급

찬양곡 중에서 은혜로운 찬송을 발췌하여 성도들의 가정에서 항상 들을수 있는 가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보급코저 한다.

IV. 결 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16:9)

금년 한해동안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성령님의 인도 하심따라 우리가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 하나님은 크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고 우리의 찬양소리 앞에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놀라운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장학위원회



윤 명 식

(장로·장학위원장)

지명장학금제도 구상

교회설립 10주년을 맞이하였을때 우리교회는 「천국 일꾼을 키우자」는 교회의 목표를 설정하여 많은 일꾼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다가 1971.

3. 3 장학위원회 회칙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인 장학사업이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장학위원회의 장학금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지금은 교회 내외에서 천국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배출되었음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음으로는 여러 성도님들과 독지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본 장학위원회는 재정적으로 굳건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장학생이 되고자하는 많은분들의 요청을 다 들어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심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성도님들과 독지가 분들께서 장학금을 지원하여 주시어서 배우고자 하는 분들과 교회에서 키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새해의 장학사업의 규모는 대략 90여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조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 짝수달의 마지막주일 헌금은 장학기금조성을 위해서 헌금하게 되며 그외에는 특지가 여러분들의 지원과 교회의 보조에 의하고 있습니다.

가령 자기가 어떤 사람을 지정하여 공부를 시켜주고 싶을때 본 위원회에 특정지정인 장학금을 기탁하여 주시면 원하는 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또 특정지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장학금으로 기탁하시면 그분의 성함이나 혹은 다른 명칭을 써서 X X X 장학금이란 명칭으로 영구 보존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께서 이일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학생 되기를 희망하는 많은분들의 참고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장학위원회 회칙중 일부만을 소개하겠습니다.

제12조 장학생의 종류

제1항 국내장학생

- 1) 교역자 장학생
- 2) 총신신학대학원 장학생
- 3) 일반장학생

- 4) 주일학교 중·고·대 모범장학생
- 5) 특정한 위탁장학생
- 6) 당회 특별장학생

제 2 항 외국유학장학생

국가의 소정외국유학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학문을 연구하여 학위를 받은 후 본교회 신앙과 행정노선에 순응하기를 다짐하는 진실하며 유능한자.

제 1 조 심사기준

신앙이 독실하여 교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는 무흠세례교인으로서 천국 일꾼의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자로 다음 각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제 1 항 국내장학생

- 1) 본교회 교역자
- 2) 본교회 주일학교에서 계속 6년 이상 교육을 성실히 받은자.
(유년부-초등부, 초등부-중등부, 중등부-고등부, 고등부-대학부)
- 3) 본교회에서 만 3년이상 당회가 임명한 봉사직에서 성실히 봉사한자.
- 4) 특정한으로부터 위탁을 받은자.
- 5) 당회가 특별히 인정한자.
- 6) 주교·중·고·대학부에서 모범생으로 추천된자.

제 2 항 외국유학장학생

- 1) 본 교회 주일학교에서 계속 10년이상 (중등부-대학부) 교육을 성실히 받은자.
- 2) 본 교회에서 만 5년이상 당회가 임명한 봉사직에서 성실히 봉사한자.
- 3) 당회가 특별히 인정한자.

제 19 조 자격상실

장학생이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생 자격을 취소하고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 1) 교회 또는 학교에서 책벌을 받았을때.
- 2) 학업성적이 평균 B 학점 미만일때
- 3) 본 위원회 허락없이 타교로 전학하였을때
- 4) 장학생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

이상이 대강의 요약이나 그외에도 구비서류, 장학금액, 장학금 수혜기간, 장학생징원 등의 규정이 있으나 지면관계상 약하였습니다.

봉사위원회



박 치 민

(장로·봉사위원장)

자원봉사 활용 극대화

금년에 새로 신설된 봉사위원회의 책임자로 임명받게 되어 기쁘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을 맡게되었다는 사명감 때문에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생소한 분야인 관계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일이 잘 풀리고 원활하게 결과가 나타날지 궁금해 하면서도 이왕 나에게 주어진 과제라 생각하고 몇가지 측면에서 저 나름대로의 봉사·운영의 문제점과 계획을 피력해 봅니다.

첫째는 충현에 속한 성도들의 직능별 및 기능별 달렌트의 집합입니다.

개개인들이 한가지 이상씩 좋은 특기와 봉사영역을 갖고 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우수한 두뇌와 기술직을 사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자원봉사의 기회를 주고 싶어도 활동영역이 마땅치 않거나 일거리를 주지 않아 봉사의식을 침체해 하고 있으며, 세번째로는 교회가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해도 성도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능들이 좌약되지 못해 교회성장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자원봉사에 따른 교회성장을 유도하고, 적재적소에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투입하여 민족복음화에 활력을 넣어주고, 거대한 조직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을 다소나마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봉사의 개념을 인식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접수와 들어온 봉사자들의 기능별 분류작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끝나는 대로 각 위원회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을 배치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의 책임있는 기도와 많은 참여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특별제언

전도부흥

통한

교회부흥과

성전건축



이 세 열

(목사 · 제8교구
담당, 전도위원
회 지도)

- 우리교회 5대 목표 중 3개 목표가 전도입니다.

8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인생에게 꿈이 있듯이 교회에도 꿈 (Vision)이 있습니다.

총현교회의 5대 목표는 우리교회의 꿈입니다. 그 중 3개 목표가 전도입니다. 바로 민족복음화, 북한선교, 세계선교입니다.

교회의 한 기관인 전도위원회의 꿈은 바로 교회의 부흥입니다. 물론 타부서도 교회 부흥의 일익을 담당하지만, 전도위원회는 특히 배가운동, 3만성도의 확보, 더 나아가서는 10만 교회의 설립 등, 그 이상의 교회 부흥과 성장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들은 대교회가 되지 못하면 힘이 약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추진할 수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힘을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올해에는 전도에 총력을 기울여 교회부흥을 도모해야겠습니다.

- 성전건축을 위하여

교회가 부흥되어 교인이 2만, 3만으로 배가 되면 성전건축은 그만큼 수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부흥을 위한 전도부흥은 성전건축과 연관된 것이요, 나아가서는 민족복음화와 교회 5대목표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새신자가 한 사람씩 증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한 사람의 새신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신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이해와 영접의 자세 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아흔 아홉마리의 양을 들녁에 두고 찾아 다니는 목자의 정신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전도는 교회 부흥의 열쇠요, 교회 부흥은 곧 성전건축의 지름길이며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에는 첫째도 전도요, 둘째도 전도요, 전도를 통한 교회부흥과 성전건축을 축

진하였으면 합니다.

● 전도회와 권찰회의 유기적 관계

남·여전도회와 구역권찰회는 서로 다른 조직입니다. 이 두 조직은 그 기능이 서로 다릅니다.

전도회는 이름 그대로 전도하는 기관이요, 권찰회는 전도한 새교우와 기존신자를 보살피고 지키는 기관입니다.

전도회가 새신자를 많이 모아 들이고 권찰회가 잘 돌보고 지키는 때, 교회는 날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심방은 운동경기에 있어서 한 팀과 같은 유기적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팀의 공격조와 방어조의 역할로써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격조는 상대 진영에 공을 물고가서 공을 넣는 것이요 방어조는 공을 먹지 않기 위해 방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승리합니다. 이렇듯 전도회는 필드(field)에 나아가서 새신자들을 모아 들이고 권찰회는 모아들인 새신자들을 돌보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회가 모아들이지 않고 권찰회가 모아들인 양떼를 지키지 아니한다면 각 조직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부흥의 열쇠는 여기에 있습니다. 즉 많이 모아들이고 잘 돌보고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 해에는 전도회와 구역권찰회를 더욱 강화하고 서로 유기적인 팀워크를 잘 감당하면 교회부흥은 성취될 것입니다.

● 전도회의 3대임무

전도회에는 크게 세가지 임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체사업으로서 회원을 확보하고 친교를 도모하며 봉사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심방하다 보면, 등록한지 오래되었지만 성도간에 친교가 없어서 신앙이 바로 성장치 못하고 교회에 대한 애착심과 소속감이 약한 교우들을 많이 보곤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우들을 찾아서 회원으로 맞이하고 친교를 도모하며 봉사에 힘을 모으는 일입니다.

둘째는 전도사업입니다.

남여전도회는 전도대를 조직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

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전도방법 중 하나입니다. 올 해는 우리교회도 전도대를 조직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으면 합니다.

셋째 임무는 지원사업입니다.

개척교회를 세우고, 약한 교회를 돕고, 군부대를 복음화하고, 경찰서, 형부소 등을 지원하는 것 등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족복음화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이며, 특히 대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상의 세가지 사업은 중요한 임무로써, 회원 확보 사업을 등한히 하면 회원이 감소되어 결국은 힘이 약화되어 사업을 못하며, 전도사업을 포기하면 교회부흥을 일으킬 수 없으며, 지원사업이 없으면 전도회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올 해에는 우선 회원확보와 친교를 도모하며, 전도에 힘을 썼으면,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도사업에 총력을 집중하였으면 합니다. 전도는 곧 교회부흥의 지름길이요 성전진축을 촉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 전도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무슨 일에도 우선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 분위기가 조성되어질 때,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여 등록시키려는 마음이 생겨나서 각자는 전도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이 분위기를 위해서, 강단에서 전도가 강조되고, 교육시간에 전도에 대하여 교육하고 장려하며, 남여전도회와 기타 부서에서 전도대를 조직하여 임무가 부여되고, 철야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결심하는 등 전도 분위기를 조성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곧 교회부흥의 길이요, 교회부흥은 성전진축의 지름길입니다. 나아가서는 민족복음화와 교회의 5대목표를 추진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것은 폭발적인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분위기는 중요합니다.

● 전도의 활성화가 불 일듯 일기를

올 해에는 전도의 불이 일어나서, 전도를 통한 성전진축, 나아가서는 교회 5대목표의 사업이 더욱 힘있게 추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새 노래로 한 해를 살아가자



조 현 명
(장로 · 당회서기)

보통 노래한 곡조를 붙여서 부르는 소리나 말 또는 글, 민요 · 속요(俗謠) · 창가 · 가요의 속칭이며 시 · 시조(時調) 등과 같은 운율(韻律)을 가진 글을 말하고 있다.

어떤 국민이나 그 초창기부터 노래를 가지고 있다. 구약에는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때 라반의 말 중에 나온다. (창 31 : 27), 옛 노래로 성경에 인용된 것은 미리안의 노래 (출 15 : 1 ~ 18)와 다윗을 찬양하는 노래 (삼상 18 : 7), 드라보의 노래 (삿 8 : 2 ~ 31), 다윗의 친구 요나단을 조상(弔喪)하는 활 노래 (삼하 1 : 19 ~ 27) 등이 있고 시편은 그 집대성(集大成)이다.

저들이 하나님께 바친 노래는 '생명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시 42 : 8) 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늘 '새 노래'를 불러 바쳤다 (시 33 : 3; 계 5 : 9, 10 : 3) 이는 즐거운 일 (겔 33 : 32) 이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었다 (엡 5 : 19; 골 3 : 16).

새 성전 시대를 연 우리 교회는 새해 한 해를 새 노래로 살아야 하겠다. 새 노래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노래이다. 이것은 옛날에 늘 불렀던 노래가 아닌 전혀 생소하고 처음으로 부르게 되는 그러한 노래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새로운 체험과 이에 대한 새로운 감격에서 울려 퍼져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로 말이암은 감사와 찬송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인식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확실해진 믿음에서 울려 나오는 노래 이것이 새 노래인 것이다. 그리고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일

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새 노래는 내 자신의 신앙에 크다란 향상이 되며 부흥을 가져다 준다.

우리 한국 교회는 신도의 증가와 함께 복음 성가 · 부흥 성가 등이 많이 보급되어 있다. 부흥회나 기도원 집회 같은 데서는 복음 성가와 같은 성가가 많이 불리우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노래들이 반드시 새 노래는라 것은 아니다. 부르기 쉽고 가락이 선동적이고 편의하여 대중적일 지는 몰라도 이것이 반드시 새 노래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비록 오랜 세월을 지난 옛 노래이든 우리가 익숙히 아는 찬송가든 복음 성가이든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새삼스러운 감격적인 은혜와 축복의 체험 가운데서 불리워지는 노래 그것이 새 노래인 것이다.

나의 어린 시절에는 예배당에서 예배 시작에는 1장 찬송을 불렀고 3장 찬송이 폐회 찬송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 당시 유치부의 '예수께로 가면 기쁘리로다'의 찬송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며 저녁 예배 때마다 유년부에서 배운 찬송가 중 '전능 왕 오셔서'와 '주 사랑하는 자'라는 찬송들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고 나의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되었고 이 찬송이 나의 새 노래가 되었다. 노래는 같은 노래이며 200 여년 전에 지어진 옛 노래이지만 단순히 흘러가버린 노래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내 체험이 있을 때마다 이 찬송을 들으면 이 노래는 나를 새롭게 해주는 새 노래가 되는 것이다.

현재 찬송가 장수가 550 여 장이되나 보통 우

리 성도들이 부를 수 있고 귀에 익은 찬송은 그의 반수 내외라고 본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찬송가 부르기에는 찬송가 작사자·작곡자와 이를 만들게 된 동기 등의 참고 사항을 간단히 해설함도 필요하다고 본다.

찬송을 열심히 배우고 불러서 찬송 속에 예

배가 시작되고 끝 마치며 바울 사도의 말과 같이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는 찬송 교육이 되어서 앞으로 부르는 찬송들이 모두 우리들의 새 노래가 되도록 이 한 해를 살아가야겠다.

단상

관심의 차이

최 명 실

(교사·중등부)

아주 옛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 천년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렸다.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원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의 죽은 영혼을 살려 영생을 줄 메시아가 아니었으며, 정치적 속박으로부터 풀어 줄 메시아였다.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의 훌륭한 삶이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지구 덩어리에서 인간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게 하시는데 관심이 있으셨다.

물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그러므로 때로는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덜 중요한 것이, 약간의 희생을 치를 수도 있다.

하나님의 관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몹시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침 안개와도 같은 인생의 무가치한 것보다는 영원히 가치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몹시 사랑하신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관심으로 표현된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육에 대한 관심으로 표현되지 않으며, 죽지 않을 영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난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 세상의 부귀, 명예…… 등을 몹시 갈망하고 있다. 그것들을 잡아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나에게서 또 주위 사람들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일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우리교회를 생각해 본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며, 분명히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우리교회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5 대목표가 우리의 참 관심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과연 일치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며 또 기도해 본다.

충현교회



다음 「충현교회」 소개글은 기독교문사가 간행한 기독교
대백과사전(基督教大百科事典) 제14권(1984년 12월 발행)
에 실린 내용 전문(집필 조선근 장로)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충현교회 忠峴敎會 장로교회, 1953년 9월 6일, 서울 중구 인현동에 동일(東一)교회로 설립되었고, 1954년 10월 26일 중구 총무로 5가로 이전했으며, 1956년에 교회 명칭을 「충현교회」로 바꾸었다. 1968년 성전신축을 계획하여 1970년 강남구 역삼동에 교회부지 9천평을 마련하였고 1980년 건축에 착공하여 1984년 4월 입당예배를 드렸다. 교회 설립자이자 현재까지 31년간 충현교회를 이끌어 온 김창인(金昌仁) 목사는 1948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월남하여 1949

년 서울 장충동에서 재건교회를 설립하고 조사(전도사)로 시무했고, 6·25 사변중 부산에서 1952년 6월 28일 부산 동대신동 1가에 동일교회를 설립했다. 이 교회는 이북에서 피난온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교회로서 1953년 서울에 설립된 동일교회도 부산의 동일교회 일부 교인들에 의해 세워졌다. 김창인 전도사와 도와 동일교회 설립에 동참했던 인물들로는 김천준·홍수정·원경식·한명덕·이학주 등이었다.

서울 수복과 함께 부산에 피난했던 교인들이 서울로 올라옴에 따라 부산 동일교회 일부 교인들도 서울로 올라왔고 1953년 9월 6일 인현동 한명당 집사택 2층에서 18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렸다. 그해 12월 김창인 전도사가 부산에서 서울로 이주하기까지 서울과 부산의 두 동일교회를 인도했다. 김전도사가 1957년 부산의 고려신학교를 졸업하고 1958년 예장 고신측, 경인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음으로 그해 9월 30일 충현교회 당회장으로 부임했는데 그 전에는 강진선·고홍봉·장석인·전철홍 목사가 당회장으로 봉직했다. 이보다 앞서 1954년 5월 초대장로로 강지순·최재성이 취임했고 우성원 장로의 장로장립이 거행되어 9월에 비로소 당회가 조직되었다.

교회설립 초기부터 주일학교 교육에 관심두고 1963년 천국일꾼 양성이란 교회목표 발표

1953년 10월 충무로로 옮긴 후 천막교회로 지내다가 교인들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1954년 교회건축을 시작했으며 교인들의 헌금, 헌신적인 봉사와 미군 후방기지 사령부의 후원으로 1958년 9월, 291평 예배당 건축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 이미 당시의 교세는 장년부 730명, 중·고등부 128명, 유·초등부 402명에 이르렀는데, 특히 교회설립 초기부터 김창인 목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온 주일학교운동이 조천일·임승원 교역자들의 협조를 얻어 크게 발전했으며, 1961년에는 180평의 교육관(별관)을 신축했다.

이와 함께 전도운동에도 활기를 띠어 청년회(1956년 조직)에서 1956년 돈암동에 성암교회를, 여전도회(1954년 조직)에서 1958년에 의정부 중앙교회를, 남전도회(1957년 조직)에서 1957년 정릉동에 동암교회를 각각 개척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계속해서 1959년 청년회에서 상도동에 상도교회를, 여전도회에서 충남 부여에 부여제일교회를, 중·고등부 학생회에서는 충북 옥천군에 세산교회를 각각 개척했으며, 1960년에는 경기도 평주의 저머리교회, 성동구 명일동의 성인교회가 지교회로 되었고, 1961년 대학

생회에서 서울 삼양동에 삼양교회를, 남전도회에서 소사에 상리교회를 개척했다.

충현교회는 처음 예장 고신측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1959년 예장이 또다시 연동측(WCC)과 승동측(NAE)으로 나뉘게 되고 1960년 승동측이 예장 고신측과 합동하여 소위 예장 합동측교단을 형성하게 되었을 때 충현교회도 자연 합동측에 소속하게 되었다. 1962년 고려신학교의 한상동 목사를 비롯한 일부 교역자들과 교회들이 고려과 환원을 선언하고 합동측에서 분리해 나갈 때, 충현교회는 이에 동조하지 않고 합동측에 남게 되어 현재까지 합동측 교단의 교회가 된 것이다.

김창인 목사는 「하나님영광 중심의 신본주의」(시 18:1)를 모회 이념으로 성수주일, 십일조를 강조하면서 서머나교회와 같은 순교 정신과 빌라델비아교회와 같은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역설했다. 나아가 경건한 예배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기울였다. 1963년 수석부목사제도를 만들어 확장되는 교세에 대비한 목회제도 확립을 시도했으며, 김창인 목사는 설립 10주년을 맞은 1963년 9월, 「천국일꾼 양성」이란 교회목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기독교 교육에 박차를 가하여 1961년 조직된 교육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1964년 1월에는 한국에서 최초로 겨울어린이성경학교를 개최했고, 이때 자체에서 간행한 공과발간의 경험을 기초로 1967년에는 주일학교 유년부·초등부의 계단공과를 집필, 제작했는데, 이를 예장합동측 교단에서 흡수, 교단 전국 교회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1967년 주일학교 각부가 개별적으로 발간하던 월보를 통합하여 (충현주교)로 발행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1974년부터 (월간 충현)으로 발전, 오늘날의 교회 기관지가 되었다.

교육운동은 곧 전도활동으로 연결되었다. 1965년 중·고등부 안에 70인 전도대가 조직되었고, 1967년에는 어린이전도대도 조직되었는데 이는 1961년 조직된 청년회의 청년봉사대와 함께 충현교회 전도운동의 추진 새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전교인이 참가한 노방전도와 병원·경찰서·교도소·군부대·학교 등지를 대상으로 한 전도는 1960년대 한국교회의 활기찬 전도운동에 충현교회가 그 주역으로 등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개척교회 설립도 계속 추진

되어 1963년 여전도회에서 연회동에 희망교회를, 1965년 남전도회에서 고양군에 장항오리교회를, 여전도회에서 장위동에 장성교회를, 1968년 여전도회에서 상계동에 상현교회를 개척했고 그해 남전도회에서 용인의 새마을교회를 보조했으며 1969년에는 거여동에 동현교회를 개척하였다.

당회장의 하나님 영광 중심의 목회이념…… 교육운동은 전도 활동으로 연결 확산되고

1964년 대만선교를 위한 헌금을 실시한 것을 계기로 전도의 범위를 국외로 넓히기 시작한 충현교회는 1965년 제직회 내에 선교부를 신설하여 초창기에는 주로 대만선교를 지원하다가 1968년 정식으로 「충현교회해외선교회」를 발족하여 해외선교를 추진한 결과 1979년 서만수 목사를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파송했고, 이어 일본에 유병세 평신도선교사를, 이집트에 이연호 선교사를, 홍콩에 홍종만 선교사 등을 계속 파송하여 1984년 현재 11개국 1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미국 털사충현교회를 비롯해 해외에 4개처의 지교회를 두고 있다.

설립 20주년을 맞은 1973년에는 주일 낮에배 참석교인수가 2천명을 넘게 되었고, 이와 함께 교인들의 신앙 내실화에 주력하여 장로수양회·충현성경학원·교사양성학교·지도자양성부·제직훈련을 통하여 체계적인 교인 신앙훈련을 실시했으며, 1972년부터 농어촌교회 지도자 초청 교육을 실시한 결과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충현교회의 전통적 과제의 하나인 전도 운동도 70년대 산업사회 발전에 발맞추어 과학적인 조직과 운영을 통해 추진하였는데 1972년 효과적인 전도사업을 위해 당회 직속의 전도부를 신설하였고 이를 1975년에 전도위원회로 발전시켰으며, 1974년에는 산업전도교육부(후에 직장전도교육부)를, 1976년에는 산업전도회와 의료인들로 구성된 의료전도단을 구성하여 사회 각 분야에, 특히 소외된 지역에 대한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 1972년 한해동안 34명의 전도대원이 5개 교회에 파송되어 1,430가구를 방문하며 전도한 결과 725명의 결신자를 얻게 되었고 다음 해에는 817명의 결신자가 생겼다. 한편 1977년 조직된 출판위원회는 김창인 목사의 설교집(나

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와 함께 〈월간 충현〉과 〈충현의 말씀〉 그리고 전도지 발행 등 문서 전도를 통한 교회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밖에 1967년도부터 김창인 목사의 방송설교(기독교·극동·아세아 방송)가 실시되었고, 1964년부터 시작된 군부대선교는 1973년 판문점 입구에 통일촌교회 설립이라는 업적을 보였으며, 1982년부터 군중사병 초청세미나를 개최하여 군선교를 지원하고 있다. 1973년 씨앗선교회란 이름으로 시작된 북한선교회(1977년 창립)는 이북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월남한 김창인 목사를 비롯하여 같은 처지의 교인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추진할 수 있는 특수 선교기관이었다. 종래의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대(對)북한 선교의 개념을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꾸어 특공대원 훈련 및 양성을 위한 북한선교원을 개설하여 제3국을 통한 북한선교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1968년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에 43,500여평 대지를 마련하고 「충현동산」을 조성, 교회묘지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1978년에는 충현동산 경내에 권사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교회의 지원으로 「충현기도원」이 완공되어 교인들의 신앙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1974년 노인들로 편성된 노년부(후에 소망부)가 주일학교에 신설되었으며, 1975년에는 영아부를 조직, 부모교육을 겸한 영아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충현교회는 교회의 중추신경과 같은 구역의 심방과 구역행정에 많은 힘을 쏟아왔다. 1955년 16개 구역으로 구역권찰회가 조직된 이래 구역은 날로 발전, 설립 10주년인 1963년에는 26개 구역이 되었고, 1963년 백성룡 목사가 구역권찰회를 맡으면서 활성화되었으며, 1973년부터는 효율적인 구역활동을 위해 구역권찰훈련을 실시하던 중 1978년부터 구역교사제도를 실시하여 교회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구역관리에 혁신을 가져왔다. 1984년에 이르러 10교구 776구역으로 늘어났다. 1970년대에는 새 교회당 건축부지 마련 및 교회건축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도 교회개척 및 지원은 계속 추진되었다. 1973년 남전도회에서 경기도 가평에 장락교회를, 북한선교회에서 통일촌교회를, 1974년 남전도회에서 신림동에 낙현교회를, 1975년 남전도회에서 경기도 여주에 금현교회와 인천시에 우리교회를, 여전도회에서 구로공단에 성광교

회를, 1976년 여전도회에서 안양에 천지교회와 영등포에 성현교회를, 1977년 단양에 매포교회를 각각 개척하였다.

한편 1961년 별관(교육관)을 신축하고 이듬해 교회부속건물(창고·사택·변소)을 마련한 이후 계속 교인들이 늘어남에 따라(주일예배 2부제 실시 1970년, 3부제 실시 1974년, 4부제 실시 1977년...) 교회건물 확장이 불가피해졌고 충무로 소재 교회당 확장이 대지구입 실패로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강남지역에 새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수립했다. 1968년 새성전건축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화된 교회신축사업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1970년 논현동(지금은 역삼동)에 9천평을 매입하기에 이르렀고 1978년 서울에서 건축허가(서울시 환지조성계획으로 6,067평 대지 확정)를 얻어 1980년 건축에 착공, 1984년 4월 교육관과 선교관이 완공되었으며, 본당(연건평 1만여평)은 완공중에 있다. 본당건물은 예배좌석이 6,500석에 이르고 2층으로 된 지하주차장에는 650대 차량이 주차할 수 있으며, 전통적 고딕건축 양식을 하고 있다.

김창인 목사의 개인적인 영적 역량이 충현교회의 강력한 성장요인 되고 있다.

18명의 교인으로 시작된 충현교회는 31년의 역사를 거쳐오는 동안, 발전을 거듭하여 1984년 9월 현재 등록교인수는 5,135세대에 11,134명에 이르는 대형교회로 성장하였다. 현재 교역자는 당회장 김창인 목사를 비롯하여 49명이며, 선교사가 11명, 장로 76명, 안수집사 61명, 권사 359명, 집사 1,255명에 이르고 있다. 김창인 목

사의 목회 이념에 따라 ①천국일꾼양성 ②민족복음화 ③북한선교 ④세계선교 ⑤새성전건축 등 5대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충현교회는 그간의 교회성장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교회성장을 주제로 열린 회튼 83 대회에는 교회성장 사례의 하나로 또는 세계 20대교회로 충현교회가 선정되어 연구되기도 하였다.

충현교회의 성장요인은 물론 성령의 역사지만 다음과 같이 추적할 수 있겠다. 강력한 성장요인은 설립때부터 교회를 이끌어 온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개인적인 영적 역량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보수적이면서도 열성적 신앙이 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수용되고 이식되어 이것이 활발한 교육 및 전도활동에의 참여로 발현된 데서 교회성장의 요인을 발견할 수 있으며 남-여전도회, 선교회, 주일학교, 교구 및 각종 위원회 등의 조직과 활동을 통해 교인들의 자발적이고 열성적인 신앙생활을 유도한 것 역시 성장의 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제 충현교회는 보수 교회의 한 지도적 교회로 성장해 오면서 축적된 힘을 국내선교뿐만 아니라 북한선교 및 해외선교에 투사시켜야 할 미래의 사명을 갖고 있다.

참고문헌 충현 10년사, 1963; 충현 '20년사' 1973; 충현 25년사, 1978; 월간충현, 1972-84; This is the Chung-Hyeon Presbyterian Church, 1983; 강정규 엮음, 한국의 7대교회, 1983; John N. Vaughan, The World's 20 Largest Churches, 1984; 충현교회 기획조정실 자료 제공, 1984. 9; 김창인 목사 증언, 1984. 9. (조선근)

오늘의 충현으로
성장시킨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설교모습



신년
기도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소서

송 환 창

(장로·당회부서기)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시공에서는 실로 한순간에 지나지 않사오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새로운 의미가 담긴 1985년도의 새해, 새달,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해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움을 주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에 감사와 존귀를 올리오며, 이제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았아오니,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혀 주시옵기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곳이며, 하나님의 지배아래 있게 되는 새생명의 사람이 있을 새하늘과 새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아버지! 이나라와 이민족을 붙들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땅에는 처음하늘과 처음땅이 없어지게 하시고, 바다도 다시 있지않게 하시어서 휴전선이나 땅굴이 다시는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하여주시옵시고, 우리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여 주시어서 튼튼한 안보위에 새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위정자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새정치를 펴게 해주시며, 이민족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마음을 주시어서 세계평화를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백성되고 새겨레되게 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성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아버지! 완공되는 날도 하루속히 주실 줄 믿사옵거니와, 새포도주가 새부대에 넘치듯이 우리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새사람을 덧입은 성도가 날마다 더하여 부흥발전하는 은총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성전에서 새노래를 노래하며, 천국일꾼을 양성하여 북한선교와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의 새비전을 힘있게 펴나가게 하여주시옵소서.

또한 총현의 성도를 기억해 주시어서 항상 하나님앞에 있을 것 같이 새하늘과 새땅에 우리자손과 우리이름이 항상 있게 하여주시며, 개인과 가정과 사업에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셔서 승리하며 성공하는 성도들 삼아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여호와와 영광이 새해에도 이나라와 이민족과 교회위에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지속적인 동행



김 광 신

(장로·기획조정실위원)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므두셀라를 낳은후 삼백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다.

신년 원단이 되면 일년의 계획을 세워 첫날부터 실행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되나 대다수의 사람은 「작심삼일」의 후회속에 일년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만다.

자기의 선한 뜻을 일년동안 지속하기도 어렵거든 삼백년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가히 기적의 삶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에녹은 자기의 전 생애를 하나님 의식에서 떠날 수 없는 섭리의 삶을 가졌다는 뜻이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에녹 한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것이 아니고 주를 믿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지속적인 동행의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우리 앞에 전개되는 절망의 늪도, 질병의 시간도, 가난의 사건도, 실패와 환

난의 날도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도록 하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모든 상황속에 하나님이 섭리 하심을 믿고 그에게 맡기므로 동행하던 순간이 없도록 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즐거울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환난과 핍박중에 더욱 하나님을 찬양했으니 옥중에 있을때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 의식을 표현하여 전 감옥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냈었다.

묵상과 찬송,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을 가까이 모시기만 하면 날마다 더 가까운 하나님과의 동행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에녹처럼 하나님이 현장에서 대려가실 만큼의 합격자가 되는 것이리라.

금년 일년은 순간마다 주님의 숨결이 섭리 계시도록 나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맡기고 사는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지난 한해동안 후원해 주신 선교회원 여러분과 선교현지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사역을 위해 피땀흘려 수고하신 여러분께 문안과 함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에도 주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하시는 모든 사역위에 날마다 더욱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서만수 선교사)

- 주님께서 세계에서 제일 큰 섬인 파푸아뉴기니 섬의 인도네시아 영토인 이리안자야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것을 감사드리며, 현지 선교 사업을 위해 선교사 2명을 요청하고 계신다.
-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선교를 하기위하여 현지정부와 요청으로 한국업체와 합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기도의 후원이 요청된다.
-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서 현지선교 본부를 위해서도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기도제목-

-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자카르타 한인교회의 부흥을 위해
- 이리안 자야 선교지의 모든 사업 계획과 준비과정 및 선교사 2명 추가파송에 주님께서 형통한 길 열어주시도록
- 현지 선교본부에서 동역할 선교사와 할렐루야 새 선교관의 신속한 건축을 위하여
- 42개 개척교회의 부흥발전과 지원사업의 원활을 위하여 많은 후원자들이 나타나도록

서독(육호기 선교사)

- 11월15일 정부교회소속 벨러 목사 및 제직과 함께 한인교회와의 유대관계 수립을 위한 대화를 가짐.
- 11월13일부터30일까지 뷔츠브룩 한인교회 추기대심방을 실시.
- '85년도 달력과 '84년 10월에 있었던 체육대회 사진 동봉해옴
- 교회문고를 위해 책을 수집하여 보내주시기 청원함.

-기도제목-

- 선교사 내외분의 영육간의 강진함과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 바스바덴, 뷔츠브룩, 하나우 세 한인교회와 모든 권속을 위해
- 계속되어지며 행하는 모든 선교사역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전파되기를

애굽(이준교 선교사)

- 11월 2 일, 16일 대림산업 카이로 공사 현장예배를 인도
- 11월 18일 쿨랄리복음주의 교회 주일 저녁예배 참석 설교
- 11월 21일 마디 미국인교회 (담임 해럴드 챔프만목사)와 카이로 한인교회 연합으로 추수감사절 음악예배를 드림
- 선교사내외분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제목-

- 지난번의 자동차 사고 처리문제를 위해
- 카이로 한인교회 프드사이드 가정교회 그리고 대림현장교회를 위해
- 애굽 현지교회와 농촌교회, 개척교회 및 애굽 기독교 수양관 건립을 위해

파라과이(김재창 선교사)

- 11월16일 207세대의 대심방을 완료
- 11월23일 한인유치원 제 4회 졸업식을 인도함
- 11월25일 12신조 암송대회를 가짐

-기도제목-

- 교회의 안정과 부흥을 위해
- 원주민 선교사업의 성공을 위해
- 선교사내외분의 건강과 자녀의 학업 및 장래를 위해

칠레(유재일 선교사)

- 11월 13일 칠레장로교 총회 소속 목사이며 요한 칼빈신학교 교수인 빠드로페가목사의 방문을 받고 쾨티아고 중앙교회 전도사 청빙을 논의
- 11월 18일 요한 칼빈 신학교 4년 졸업생인 디윗전도사를 동역자로 청빙하여 사무정리 및 설교준비와 심방업무를 전담케할 계획

- 기도제목 -

- 선교사와 가족의 영육간의 강진함을 위해
- 칠레의 정치적,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 칠레 한인 연합교회의 부흥 발전과 새성전 건축비 충당을 위해
- 개척교회의 안정과 부흥을 위해

벨기에 (김성완 선교사)

- 11월 14일 안트 워프 항구에 정박중인 '빌리호'에 승선하여 설교카펠테일, 소형성경 및 찬송가 충현의 팜플렛등을 나눠주고 선상예배를 드림
- 11월 18일 브랏셀 한인교회와 한국선원 선교교회에서 성가와 어린이 성극 및 특별순서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림
- 선상 예배시 조덕준 형제가 선상 십일조헌금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헌금으로 책 15권을 구입
- 11월 4일에 창립된 벨지움 선원 선교교회는 은혜중 복음의 전진기지로 진전됨
-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구효남 목사께서 사무하시는 서독 베를린 영락교회의 부흥회를 인도함
- 11월 11일 주님의 명령따라 새례, 입교, 학습 예식을 거행

- 기도제목 -

- 선교사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 브랏셀 한인교회와 모든 권속을 위해
- 외향선 선교교회의 발전과 활발한 활동을 위해

이스라엘 (김주경 선교사)

할렐루야! 1월13일 예루살

렘 한인교회 담임목사로 취임 하시게됨을 알려오심.

지난해 7월 2일 제2차 선교지답사 및 성지순방단 출국시 함께 파송되신 김주경 선교사님께서 그동안 사랑해주신 모든 교역자와 성도님들께 성탄카드를 보내오셨다. 또한 그 이후의 모든 선교활동을 자세히 쓰신 보고서를 보내면서 신년인사를 충현성도 여러분께 드리고 계십니다.

- 8월 2일 주거결정 (22/20 Sderot Eshkol Street, Ramot Eshkol, Jerusalem ISRAEL. Tel. (02) 810942)
- 대학원 복학수속완료 (10.28 개강 언어훈련포함 주 4일 8 과목 수강)
- 성지연구소 설립을 위한 관계기관 및 유지들과 협의 진행중
- 예루살렘 한인교회에서 적극 봉사, 추수감사절 설교
- 북한선교 어린이 합창단 베들레헴 성탄절 전야 합창제 참석을 위한 베들레헴 시장 및 관계기관과 협의, 초청장 발송 (단, 여권발급상 애로로 성사되지는 못했음)
- 본교회 성도이신 서울항공 김연근 상무로부터 한글타자기 1대 기증받음

- 기도제목 -

- 선교사님과 사모님 및 사랑하는 한희양의 영육간의 건강과 범사에 형통하심을 위하여
- 성지연구소 법인체 설립이 잘 추진되어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 예루살렘 한인교회가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모범 교회로 성장하고 성도의 사랑과 교제가 넘치기를
- 선교사님의 학업과 성지 선

교사업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권능 주시기를!

홍콩 (오치용 선교사)

당회장님의 현지방문과 함께 거행된 가을 부흥사경회와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 광경을 담은 사진재료를 보내주셨다. 또한 중공선교를 위한 연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10월30일에는 CCCO WE의 토마스왕 목사를 방문하고 교제를 나누었고 중국인 사회의 풍습과 모습을 담은 사진도 함께 동봉 현재 영국 영사관에서 언어훈련을 받고 계신다.

- 기도제목 -

- 오치용목사님과 가족들의 건강 및 언어적응을 위하여
- 홍콩충현교회의 안정과 화합 및 부흥발전을 위하여
- 중공 및 공산권 선교활동의 활발한 전개와 발전을 위하여

인도 (엘리아젤간 선교사)

극심한 설사와 열병에 시달리고있는 아들 안드레아스 군의 건강을 위해 특별기도를 요청 하였던 엘리아젤간 선교사님께 계속 기도의 지원을 바랍니다. . 병고로 시달리는 아드님과 국민학교 영어교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사모님을 남겨두고 계속 번역된 성경을 배포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며 지역사회개발 및 전도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 기도제목 -

- 선교사내외분과 안드레아스의 영육의 강진함을 위해
- 퓨리그어 성경번역사역을 위해

- 인도의 정치적 경제적인 안정과 복음전파를 위해

일본 (유병세 선교사)

- 11월 11일 광미교회 예배후 한국과 일본의 교류에 대해 교회에 소개
- 11월 24일, 25일 실란에서 열린 초음과 학회에 참석. 실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소개 받음
- 병원전도의 열매로 전도받은 분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와 주님께 감사
- 이윤호 권사님께서서는 부인 성경반 활발히 인도하고 계심
- 병원전도 및 교포전도도 계속 실시함

- 기도제목 -

- 선교사 내외분께서 영육간의 강건하시고 성령의 권능 충만 하심으로 열매 풍성하시도록
- 주님께서 병든자들의 의원되어 주시사 고침을 받은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수 있도록
- 선교사역의 기반인 의료사업이 더욱 잘 진행되도록
- 본국에 있는 자녀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안보하심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도록

리성총현교회 (정상우 목사)

당회의 조직과 함께 안정속에 날로 부흥발전하고 있는 라성총현교회에서 정상우 목사님과 제직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와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문안편지가 도착함.

- 기도제목 -

- 정상우 목사 내외분과 가족

의 건강을 위해

- 라성총현교회가 주안에서 성장하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도록
- 라성총현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주님 중심으로 생활하기를

털사총현교회 (강성진 목사)

- 털사총현교회는 11월중 세례식을 거행 세례교인 26명이 수례, 입교 1명, 유아세례 4명 학습교인 3명으로 모두 34명이 등록함
- 교회활동을 담은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보내주심
- 현재의 출석교인은 54명이 회집

- 기도제목 -

- 강성진 목사님과 가족을 위해
- 털사총현교회가 주안에서 성장하며 모든 권속을 위해
- 교회대지 추가매입을 위해

뉴욕총현교회 (박종만 목사)

주일 설교를 담당하시던 이종윤 목사께서 전주대학교 총장으로 부임차 귀국하시게 됨에 따라 손계웅 목사님께서 수고하고 계시며 박종만 목사님의 부임을 위해 성도들이 합심 기도하고 계심

- 기도제목 -

- 박종만 목사님의 출국수속이 신속히 잘 진행되도록
- 뉴욕총현교회가 교회의 목표와 같이 주안에서 증거와 사랑과 영적으로 크게 성장 발전하여 교민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 손계웅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의 영육이 강건하고 범사에 형통하시도록

본부소식

- 11월 4일부터 선교사진전 3차분 "본부 및 선교지소식"을 전시함
- 11월 6일, 7일 양일간 세계선교연구소자료 및 업무를 선교본부와 통합 운영하기 위해 이사 정리함
- 11월 10일 미국 개혁신교단 뉴욕대회 총무 존 힙스트라 목사께서 박종만 목사의 뉴욕총현교회 출국수속을 위해 방한
- 본 선교회 총재이신 김창인 목사께서 홍콩총현교회 방문하여 부흥집회를 인도하시고 11월 12일 귀국하심
- 11월 25일 '84년도 총현세계선교회 정기총회를 3부 예배후 대예배실에서 18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짐
- 12월 5일 각 선교지 선교사님께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선교에 열심있으신 성도님들과 한나 및 에스더 여전도회의 협조를 받아 선물을 발송함
- 12월 17일 해외에 있는 총현의 성도들에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크리스마스 및 신년카드와 월간총현, 총현의 말씀등을 발송
-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본국에 있는 선교사 가족들에게 간단한 위로의 선물을 전달함.
- 12월 30일 총회 속회에서 신년도 선교사업 및 예산안 통과 확정

금년 1월 27일은 제11회 세계선교주일입니다.

선교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또한 해외에 계신 총현의 선교사님과 지교회에서도 함께 행사를 갖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롭 게 편 집 되 는 월 간 충 현

「월간충현」은 새해부터 편집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월간충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투고로 협조해 주신 성도와 독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새롭게 편집되는 월간충현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충현교회의 대변지로

월간충현은 성도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지는 충현교회의 기관지입니다. 충현교회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목회방침에 따라 대내외 홍보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교인들의 신앙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편집하게 됩니다.

예배, 전도, 교육, 선교, 구제, 봉사에 이르는 모든 충현교회 활동이 일목요연하게 게재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교구활성화에 역점을 두는 지면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제달 제 날짜에 나오도록 힘쓰다.

지난 한해는 여러가지 교회형편상 매월 발행하지 못하고 합본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이런 난문제를 해소하고 제달 제 날짜에 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스의 확대와 신앙간증 확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뉴스를 광범위하게 다루게 될 것이며, 성도 개인의 신앙간증, 미담, 전도성공사례 등에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뉴스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정보를 기획조정실 홍보출판부로 언제든지 제출해 주십시오.

정중하게 기사를 취급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사적 기획특집 마련

주님의 몸된 교회인 충현교회의 역사는 교회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85년 연간사업계획에 준한 기획특집물을 게재할 계획입니다.

때로는 분야별 전문인을 월간충현에 등단시켜 실제적인 내용의 목소리를 듣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방법은 후일 충현을 이해하는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며, 주님 오신 그 날까지 계속 전도활동 영역에 큰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월간충현 기자 활용

정보 홍수시대에 살고있는 우리들인데, 월간충현도 이와 병행해서 새로운 정보와 자료를 입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월간충현 기사를 선임하여 자원봉사 형식으로 활용할 방침이며, 교회내외의 모든 뉴스원을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이 이들에 의해 전개될 것을 기대합니다.

온 성도가 참여하는 「충현」기관지 육성 월간충현은 어떤 특징인의 홍보매체가 아니므로 온 성도가 참여하는 충현기관지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질서와 조화, 그리고 화합의 음률에 맞추어 세계를 향해 향해하는 「충현」호의 발전에 성도 여러분과 독자재위의 뜨거운 기도와 협력을 요청합니다.

교회소식

당회장 85년도 목회방침 시달

당회장 김창인목사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당회실에서 85년도 목회방침을 (6페이지 참조)시달했다.

교역자 및 장로 1백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합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배우며 전하는 교회를 감당키 위해 충현교회 5대목표인 천국일꾼양성, 북한선교,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성전건축에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힘을 쓸것을 역설했다.

85년 신년예배

1월 1일 4부로 예배드려

교회는 85년 신년을 맞아 지난 1월 1일 4부에 걸쳐 본당에서 신년예배를 드렸다.

제 2부 예배(오전10시)에서는 김창근목사 사회로 진행, 김원남목사의 기도, 성경 창세기 37장 1~11절을 봉독한후 당회장 김창인 목사가 「꿈의 사람 요셉」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85년도 예산처리 공동회의

교회는 지난 6일(주일)12시 3부예배후에 85년도 공동의회를 열어 새해예산 경상비 16억 1천 2백82만원과 건축예산101억원을 통과시켰다.

일반 경상비는 작년(84년도)에 비해 약 2%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대·동기수양회

본교회 교육위원회 산하 고등부(부장 오정현장로)는 지난 14~16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동기수양회를 개최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주제로 개최된 동 수양회의 강사는 김익경 강도사와 유희섭전도사였다.

대학부(부장 정하우 장로)는 2학년 동기수련회를 15~16일 충현기도원에서 가졌으며, 강사는 윤태곤목사였다.

한편 중등부(부장:서동석장로)는 28~31일까지 교육관 407호에서 동기수양회를 개최한다

「주 안에서 하나되자」란 주제로 개최되는 동 수양회의 강사는 김창근·이원길목사이다.

성탄축하예배

유·초·소년·중·고등부

중고등부와 유년·초등·소년부가 성탄축하예배를 드리며 주님나심을 기뻐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7시엔 중·고등부 성가대가 주관하여 음악예배를 드렸고, 25일 오후 7시에는 유·초·소년부가 성탄축하음악 예배로 드렸다.



△ 성탄축하예배에서 찬양하는 초등부성가대

단기수련회 성황

「성숙한 성도, 성장하는 교회」를 주제로 개최된 85년도 단기수련회가 지난 1월 2일부터 12일까지 본당 및 교육관에서 실시되었다.

교육위원회 성경연구원이 주관한 동 단기수련회에서는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85년도 목회방침이 시달되었고, 교역자 및 장로, 제직 및 권찰, 구역교사, 주교교사 및 성가대원, 그리고 회계와 교회직원등으로 구분하여 강의가 진행되었다.

동 기간중의 강사 및 강의제목을 다음과 같다.

△김창인목사/85년도 목회방침
△임종만목사/교회성장에 있어서 교역자와 장로의 역할, △최석주장로/85년도 교회직원업무지침, 교회재정정책, △장정일목사/직원의 직무자세와 사명, 85년도 구역운영과 그 방향, △장경재목사/제직 및 권찰의 직무와 실제, △이성근목사/효과적인 구역성경공부, △조영길목사/85년도 교육위 운영방향과 목적, △김창근목사/85년도 성가대 운영과 목적, △길자연목사/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내용·헌신과 충성, △윤종순장로/회계실무 및 감사

24시간 연속기도 마쳐

새성전 건축과 교구부흥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실시되었던 24시간 연속기도가 지난 12월 30일 6교구를 마지막으로 6개월간의 연속기도를 모두 마쳤다.

85년도 제직총수 2,031명

당회는 85년도 제직총수가 2,031명이라고 밝혔다.

장로 76명, 안수집사 66명, 권사 480명, 서리 남집사 488명, 서리여집사 973명이다.

남여전도회 임원단교육

전도위원회 주관으로

전도위원회(위원장 정석태장로)가 주관하는 남·여 전도회 임원단 교육이 1월 22일(화) 오후 7시 교육관 307호실에서 개최된다.

교회의 전도방침 및 전도위원회의 지도지침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동 교육엔 약 7백여명의 임직원 등이 참가게 되는데, 프로그램은 1

부예배와 2부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케 된다.

△예배설교/김창인목사, △85년도 전도위원회 지침/정석태장로, △배가운동을 위한 전도법/이세열목사, △70인전도법/이양우목사.

한편 같은날 교육관 307호실에서는 각기관 및 주교 전도담당자 훈련도 병행 실시케 된다.



△임진각서 가졌던 통일기원 망향예배

구역권찰회

운영방침 발표

구역권찰회(회장 장정일목사)는 85년도 구역권찰회 운영방침을 발표했다.

동 방침에 의하면 표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일하며 전하자”이다.

국제성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18편 1절)이고, 주제찬송은 “날 위하여 날 위하여”(426장) 그리고 85년도 등록목표는 2,400세대이다.

통일기원 망향예배

사단법인 북한선교원이 주최한 통일기원 망향예배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1시 임진각 자유의 다리 앞에서 있었다.

이날 예배는 조준삼목사 사 회로 진행, 길자연목사의 기도, 북한선교원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김창인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설교이후 특별기도로 ①북녘땅의 동포를 위하여 흥은혜권사, ②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최상규장로, ③ 이산가족을 위하여 이태규장로, ④ 대통령과 정부지도자를 위하여 김기정장로, ⑤ 북한선교원을 위하여최석주장로가 각각 기도했다.

북한선교

전도특공대 동기훈련

북한선교원은 21~26일 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제 4 차 북한선교 전도특공대 동기 훈련을 실시한다.

“북녘땅에 잃은 형제 복음으로 다시찾자”란 주제로 개최될 동 훈련에는 약 7백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강사는 김창인 목사, 조준상목사, 최봉호목사 외 여러분이다.

교역자 사택입주 충현빌라에 10세대

본 교회 교역자 사택이 완공됨에 따라 교회당 근처에 건립된 충현빌라에 교역자 10세대가 입주했다.

입주 호수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김원남목사(10교구담당) 101호, ▲한영철목사(7교구담당) 102호, ▲이두란전도사(9교구담당) 203호, ▲최순복 전도사(4교구담당) 204호, ▲김경성 전도사(10교구담당) 103호, ▲이진희전도사(2교구담당) 103호, ▲현정남전도사(8교구담당) 303호, ▲유순화전도사(3교구담당) 303호, ▲장영자전도사(7교구담당) 304호, ▲임태주전도사(1교구담당) 304호

(전화)

▲한영철목사 552-7750
▲이두란전도사 552-8270
▲최순복전도사 552-4603
▲현정남전도사 552-9914
▲유순화전도사 552-9914
▲장영자전도사 553-6761
▲임태주전도사 553-6761

(주소)

강남구 역삼동 674-3충현빌라

교 회 소 식

교육부서장 경질

당회는 교육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대학부 부장에 정하우 장로, 새가정부 부장에 엄필성장로, 영아부 부장에 윤광일 장로를 각각 경질 임명하고, 장년부 부지도에 윤용규 강도사로 임명했다.

또 새가정부 최기홍 부감 대신 원웅철 안수집사를 부감으로 임명했으며, 협동장로 김신호, 이복량, 이봉섭씨를 명예협동장로로 하기로 했다.

수요일 구역교사 공과공부 장소변경

매주 수요일 본당 103호실에서 있었던 구역교사 공과공부는 난방관계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교육관 201호로 장소를 바꾸어 공부하게 되었다.

서울청년기독실업인 회장에 남선우장로선임

서울지역 청년기독실업인 회에서는 85년도에 일할 임원진을 개편하면서 동회 회장에 본교회 남선우장로(소년부 부장)를 선출했다.

기독실업인회는 비즈니스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단체이다.

11•12월의 교우동정

새교우

1교구

전달래 김선이 대치 4 류향란
역삼 7 유택준 역삼 9 이덕규

역삼 9	신재금	경북	이삼연
역삼 5	양해성	삼성 4	이동명
삼성 5	허명호	정담 4	이혜순
역삼 7	장영수	역삼 5	박종일
동신	박용대	역삼 6	민혜정
논현 12	한박선	대치 2	송진태
도곡 5	이일규	영동	박선옥
신사 5	김형중	신사 5	한영자
미도	김학성	개포 11	이영배
역삼 5	염규순	정담 2	신경애

논 현 15 정태식 논 현 11 정복준
논 현 11 윤여정 삼 성 5 김희운
역 삼 6 한춘자 역 삼 6 엄정림
역 삼 7 성영이 청 담 3 송남현
개나리 2 이대형 역 삼 5 박숙자

2 교구

임구정 2 이점동 반 포 6 신난영
서 초 11 이장례 염 곡 2 홍찬영
임구정 3 이상열 신 사 5 송미랑
서 초 13 이상열 반 포 14 김행숙
임구정 3 박영후 성 남 7 유창일
성 남 6 이상학 성 남 8 이병훈
임구정 7 윤영옥 임구정 4 이광록

3 교구

신 립 7 염영분 이태원 5 이중소
사이촌 조예숙

4 교구

당 산 1 홍기철 신월 1 1 송경자
부 전 장의경

5 교구

녹 번 조완희 신 사 유동진
합 정 김이봉 현 저 김익희
갈 현 2 윤병룡

6 교구

둔암암 2 서삼철 도 봉 2 신영관

7 교구

면 목 1 변인식 구 리 3 조영심
장 안 1 김정숙 장 신 3 김순애
상 봉 1 전호덕 중 화 김옥연
망 우 2 박남순 청량리 권근호
용 두 2 김미란 면 목 8 감석자

8 교구

진 주 1 방효선 둔 촌 3 김치용
둔 촌 3 채규성 길 동 1 김미성
둔 촌 2 김정호 짐 5-3 니순희
송 파 백광빈 진 주 2 김순자
가 락 4 오정자 짐 1-3 김숙자
성 내 1 채덕희

9 교구

중 곡 2 박재원 도 선 2 신정예
중 곡 6 김항기 응 봉 2 이수진
모 진 김봉례 송 정 이애란
하 왕 2 김을수 구 의 5 전정완
구 의 2 김규섭 자 양 4 김경숙
자 양 4 남경희 용 담 3 김진섭
응 봉 1 김정자 도 선 1 김화자
홍 익 3 조옥수 하 왕 1 김우영
행 당 7 김복임

10교구

부 관 A 박경자 목 정 3 오해리
신당 5-2 정수진 중무 5-1 이의선
장중 1-5 원운식 쌍 립 3 최현순

- 정선근군(김순권사 아들)과 김정숙양 11월 6일
- 황성규군(황기성장로 김삼권권사 아들)과 이상영양 11월 8일
- 이연식군과 이남숙양(홍영화집사 딸) 11월14일
- 김동기군(김세홍집사 김남진권사 아들)과 허 주양 11월17일
- 송한욱군(송주호씨 오순탄권사 아들)과 배영숙양(성산구역) 11월17일배영
- 류재봉군(신림구역)과 유옥순양(유치부교사) 11월17일
- 하태훈군(하영주씨 신일순집사 아들)과 신은수양 11월17일
- 김중호군(김찬복목사 서석남사모 아들)과 김미선양 11월17일
- 김춘란양(김의진동생 약수구역) 11월 17일
- 이영범군과 김경옥양 11월17일
- 김창남군과 임명룡양 11월17일
- 김희동군(김달현씨 김 순집사 아들)과 이정애양(이병옥집사 한영숙권사 딸 제3천양대원) 11월21일
- 정화신군(정능1구역)과 오점자양(구의3구역 오태희장로 질녀) 11월22일
- 최용익군(인의구역)과 김영희양(중국5구역 김광수씨 조복각집사 딸) 11월24일
- 김인수군(장봉도권사 손자)와 신난숙양 11월24일
- 이성호군과 객진숙양(윤종수씨 딸)12월 1일
- 박경화군(화곡1 강옥자집사 아들)과 전해명양 12월 1일
- 송재일군과 김중숙양 12월 1일

결 혼

- 박승재군(박춘봉집사 이현섭권사 아들)과 서경희양 11월 3일
- 최성원양(최찬후, 이춘실집사 딸) 11월 3일
- 김정기군과 정신순양(채종순집사 딸) 11월 3일
- 김성만군(김여수씨 박순명집사 아들)과 김애리양 11월 3일
- 박상대군과 이명훈양(이하영집사 민건식권사 딸) 11월 3일
- 신은욱양(이순례집사 딸) 11월 3일

별 세

- 김선례사(행당4구역 염효녀집사 시모) 11월 3일
- 문종규씨(하왕3구역 우정자씨 부군) 11월 5일
- 오경균집사(안양구역) 11월11일
- 이순악씨(쌍용구역 이종익씨 부친)11월 19일
- 서계운씨(화양구역 김광호집사 모친 한성실집사 시모) 11월21일

1 월 의 행 사

□ 당 회

6 일 / 공동의회 (85년도 예산수립)
13일 / 헌금작정 (십일조 및 월정헌금등)

□ 제직회

6 일 / 정기제직회
□ 기획조정실
20일 / 월간충현발행

□ 구역권찰회

13일 / 노인심방

□ 전도위원회

22일 / 각지회 및 각 주교 전도부장훈련

□ 북한선교위원회

15일 / 농어촌 부흥회
21일 / 동계훈련

□ 예배위원회

1 일 / 신년예배
20일 / 성례식
27일 / 제직헌신예배

□ 교육위원회

2 일~12일 / 단기수련회
14일 / 고등부 동기수양회
15일 / 대학부 2학년 수련회
28일 / 중등부 동기수양회

편 집 후 기

85년 새해가 밝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소망에 대한 간절한 바램일 것이다.

“새것”을 바라는 선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금년 한 해는 “새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는 복된 한해가 될 것을 우리 모두 기도해보자.

1월호는 당회장의 85년도 목회방침과 각위원장들의 새해구상을 특집으로 엮고, 특별히 기독교문사 발행 기독교대백과사전에 게재된 「충현교회」에 대한 소개를 가감없이 그대로 실었다.

우리교회는 1월한달동안 제직헌신의 달로 정하고 새로 임직된 제직들의 헌신을 다짐하는 강의 교육, 헌신예배를 드려 교회봉사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의식을 촉구했다.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월간 충현

1985년 1월호

제13권 1호 (통권125)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5년 1월 15일 인체
1985년 1월 19일 발행

발행인 / 김창인
편집인 / 최석주
주관 / 이성근
홍보출판부장 / 김광신
편집위원 / 장정일
조현명
조영길
조선근
손경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역삼동66-1
전화 / 562-4181~5

충현교회당회원



김창인
(당회장)



조현명
(당회서기및인사위원장)



김한홍
(수양관관리위원)



윤종순
(감사위원장)



김기정
(건축위원장)



윤종성
(자산관리위원장)



임광식
(중현동산위원장)



최석주
(기획조정실장및행정위원장)



황창용



이태규
(사무국장)



이응선
(기획조정실무실장)



홍중석
(제3찬양대장)



한경일
(세계선교회장)



정석태
(전도위원장)



최성림
(세계선교회서기)



김영삼
(장학위원)



이원철



윤명식
(장학위원장)



조선근
(세계선교회 부회장)



김은호
(예배위원및성례부장)



오태희
(청년부부장)



김영개
(수양관관리위원장)



김방진
(중현동산위원)



강순용
(아주선교국장)



마성락
(북한선교전도훈련부장)



김차생
(기획조정위원)



신현상
(세계선교회재정지원국장)



고병묵
(수양관총무)



김경철
(전도위원겸전도부장)



우기전
(청년부장및총현유치원원장)



손동운
(전도위원회총무)



노관현
(제4찬양대회장)



이창엽
(도미종)



김원선
(예배 1·2부장)



오진국
(북한선교위원장)

 박 치 민 (봉사위원장)	 정 하 우 (대학부장)	 이 병 학 (중년부장)	 박 인 세 (소망부장)	 서 일 영 (수양관리위원)	 하 대 선 (재정위원회회계)
 안 익 태 (사무국위원)	 윤 인 현 (세계선교교육훈련국장)	 최 대 원 (전도위도시전도부장)	 최 상 규 (북한선교위원)	 박 승 준 (기획조정실위원)	 엄 필 성 (새가정부부장)
 정 광 호 (유치부부장)	 송 기 홍 (예배 3·4부장)	 박 채 웅 (장학위원)	 강 은 원 (전도위원회서기)	 강 모 웅 (도서실장)	 오 정 현 (고등부부장)
 최 성 현 (교육위원회회계)	 이 훈 (선교전양대장)	 김 광 신 (기획조정실홍보총무부장)	 남 선 우 (소년부부장)	 서 동 석 (중등부장)	 박 관 영 (검사위원)
 송 환 장 (당회부서기)	 이 영 세 (새신자부부장)	 정 윤 석 (직장전도교육부부장)	 김 명 길 (봉사위원)	 문 홍 구 (예배 5부장)	 조 인 제 (제 1 전양대장)
 박 철 현 (제직위원회)	 박 용 삼 (중년유치원이사)	 이 상 현 (유년부부장)	 김 재 군	 김 종 구 (세계선교위원총선교국장)	 최 무 길 (세례부부장)
 윤 광 일 (자산관리위원)	 김 천 채 (제 2 전양대장)	 이 창 호 (조등부부장)	 오 정 수 (봉사위원회총무)	 차 신 득	 김 영 군 (세계선교위원총선교국장)